

마음 열기

찬송가 445장을 함께 부르시다.

이번달 바이블로 범위(창,스,욥,골)에서 가장 기대되는 말씀은 어디인가요?

말씀 나누기 창세기 1장 1-5절, “우리에게 빛을 주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1절).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사람을 두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방을 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신 후에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것은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에 함께하셨다면(요1:1-4), 성령님은 그 창조를 실제로 행하시고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운행하다”는 “알을 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알을 품으면 부화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생명을 품어 살려내는 역사입니다. 이는 구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순간에도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로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 품으시고, 깨우시며, 자라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2절a). 그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혼돈이 질서가 되었고, 공허가 생명으로 채워졌으며, 흑암은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이유는 첫째, 빛과 어둠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하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주체는 ‘빛’입니다. 어둠이 강해서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빛이 비치면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길 때만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빛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 같은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14-19절). 이는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태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참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눈과 귀가 어두워져 이 빛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며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을 이길 수 있고, 회복되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심”을 체험했던 적이 있나요?
2. 나의 심령은 지금 밝아 있는지, 어두워져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2. 하나님의 빛을 막는 죄와 연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3. 나의 옆사람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복음과 나의 삶의 관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넓게는 성경 자체를,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기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천국의 문턱을 넘는 입장권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성화)”**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깨끗하신 분인지 발견합니다. 둘째는 **나의 죄성**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오히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의 ‘간격’을 점점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회심의 순간에는 이 간격을 작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자랄수록, 믿음을 쓰면 쓸수록 이 간격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더 악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 내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커다란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실수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두가지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는 것 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간격을 이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 사이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 삶」, 생명의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1월 11일

우리에게 빛을 주심

창세기 1장 1-5절

